

크루즈의 향해 새 미래를 향해

2019년 4월 26일, 인천항에서
내 생애 첫 번째 크루즈를 만나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11만 톤급 세레나호를 만나세요

출발 2019년 4월 26일(금) 오후 6시

일정 한국·일본·중국 5박 6일

문의 카카오톡 ID incheoncruise | 전화 010-9764-8234



같은 하늘 다른 시간

동인천역



동인천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경인전철의 서쪽 끝자락.

덜컹거리는 리듬 따라 차창 밖 풍경이 느리고 수수하게 스쳐 지난다.

여기는 동인천역, 1899년 9월 18일 축현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시작했다.

인천 사람 가운데 소싯적 동인천역 주변에서 놀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중심’은 어느새 ‘변두리’가 됐다.

사라진 사람들, 텅 빈 역사(驛舍).

하지만 한 세기가 넘도록 철로 위를 달려온 열차는, 오늘도 경적을 울린다.

조금 느릴 뿐. 동인천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손에 든 옛 사진은 고 김명철(1918~1978) 선생의 작품으로, 1950년대 동인천역의 분주한 출근길 풍경을 담고 있다.
고 김명철 선생은 우리의 근대 풍경과 삶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인천 출신의 사진작가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9년 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장훈(미디어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굿모닝인천
2019.02 Vol.302

CONTENTS



04 인천 미소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 外

05 미디어&스토리
시선을 사로잡는 3S 홍보 마케팅

06 인천 개항 136주년
개항의 창(窓)

10 커버스토리·사람과 공간
② 문병식 현악 공방

14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인항파출소

18 인천의 맛
전통주

22 우리 이웃
기사식당 이야기

26 테이스티 로드
기사식당 탐미록

28 살고 싶은 도시
② 캐나다 토론토

32 내가 사랑하는 인천
백령도를 그리다

34 시민 시장
국가대표 소상공인

36 문화 캘린더
치즈 그리고 양다일 CONCERT-인천

38 문화 포커스
인천도시역사관 기획특별전

42 이미지 뉴스
‘인천e음’

44 시정 뉴스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 개 창출 外

48 의회 뉴스
인천시의회, 2019년도 첫 회기 열어 外

50 드로잉 인천
부평도호부청사

52 仁포그래픽
일자리 정책 로드맵

54 인포 박스
2019년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外

58 인천의 아침
개항 136주년, 인천항의 미래

59 인천사진관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미디어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미소

인천과 시민을 잇는 ‘미’디어
시민의 청원에 답하는 ‘소’통e가득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쏙!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 모바일>을 입력하세요.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엽서를 통한 새로운 소통이 기대됩니다

엽서가 생겨 <굿모닝인천>이 독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더 새로운 매체로 느껴
졌습니다.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홍보 매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인천이 남북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올해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 훈 중구 도원로

Since 1994, 인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994년부터 20년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인천 시민들과 함께해 온 <굿모닝인천>은
인천을 대표하는 매거진입니다. 저 역시 <굿모닝인천>을 보며 인천 곳곳의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도 인천
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굿모닝인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박채린 연수구 한진로

일자리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어 주세요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 힘든 시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용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
을 단축하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 서민 생활이 어렵습니다.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굿모닝인천>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천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지원 제도 등을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김주혜 서구 청라라임로

인천을 넘어 전국 독자들과 함께합니다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인천이 시댁이라 평소 인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인천의 역사와 다양한 명소,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타 지역 사람들에게
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많은 독자들이 <굿모닝
인천>을 즐겨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파이팅해 주세요.

———— 김지윤 경상남도 양산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3S 홍보 마케팅

글 장훈 시 미디어담당관

시선을 사로잡는 광고의 3B 법칙이 있다. 광고 모델로 아기(Baby), 미인(Beauty), 그리고
동물(Beast)을 활용하면 비교적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오늘에 있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트렌드를 넘어 광고의 고전적 법칙으로 통용된다. 법칙까지는 아
니더라도,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트렌드도 있다. 트렌드를 잘 읽으면 제법 성공 확률이 높
은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필자는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3S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
의 홍보 전략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

먼저 외국인(Stranger)이다. 시청자는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해하기 난해한 프
로그램은 외면한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찾는 모순적 요구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외국인 콘텐츠는 좋은 해법이 된다. 외국인의 눈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낯설게 본
다. 그 시선을 따라갈 때 시청자들은 새로운 느낌에 감정이입이 되곤 한다. 꿈틀거리는 산
낙지를 낯설게 바라보는 표정이나, 한국의 일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등을 보이
는 외국인을 따라가는 시청자의 눈은 즐겁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공익성을
주기도 한다.

둘째는 스포츠맨(Sports-men)이다. 예전에도 강호동을 비롯해서 스포츠맨들의 TV 진출
은 있어왔다. 최근 들어 종편과 스포츠 채널의 확대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스포츠의 예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맨들은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이 풍
부하다. 그러나 프로 연예인으로서의 능수능란함은 약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진솔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서장훈, 김연경, 추성훈 등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
렸고 신체적 개성도 강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방송 제작자들
이 이러한 장점을 놓칠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SNS 스타이다.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 굳이 TV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많
은 팬을 거느리는 스타로 부각될 수 있다. TV와 SNS는 상호 상승 작용이 가능하다. SNS
스타가 TV에 나와서 인지도를 높이면 더 큰 SNS 스타가 되는 것이다. 또한 TV 연예인들
의 유튜브 진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향후 유튜브의 지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최근 미디어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 인천시 홍보에 적극 적용해 나
가고자 한다. 외국인이 많은 국제도시 인천이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FC와 같은 시민 구
단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프로야구 우승팀의 연고지이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인천을
무대로 뛰고 있다. 이러한 인천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미디어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다. 무
엇보다 시민들의 스토리와 콘텐츠파워를 잘 살리는 ‘시민 중심의 홍보’가 중요하다. 올해
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최선
을 다할 것이다. 시민 모두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인
천
의

개
항

창문 너머, 시간 속으로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도움말 손장원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대불호텔 전시관에서 바라보는 개항장
개항장 일대,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끝없이 열려 있다.
그 너머로 긴긴 시간을 가로지르면, 내일 새로운 역사에 닿는다.



대불호텔 전시관

옛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 금고

인천아트플랫폼

옛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

옛 제물포구락부

옛 가와바타 창고(현 인천영상위원회)

중국인 점포 주택

옛 공화춘(현 짜장면 박물관)

의선당

옛 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

옛 인천부청사(현 중구청)

중국인 점포 주택

장익사의 집

인천아트플랫폼

문(門)은 사적인 공간과 바깥세상을 잇는 통로다. 문으로는 사람과 물건이 드나들고, 창(窓)으로는 공기와 햇빛이 넘나든다. 그 사이로 시간도 흐른다. 문은 그 시대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거울처럼 비춘다. 시간의 층이 켜켜이 쌓인 개항장 일대를 걷다 보면, 자꾸만 창문 쪽을 올려다보게 된다. 사라져가는 옛 풍경을 만나는 것이 반가워서, 오래되고 낡은 창문 너머에 누가 살까 궁금해서, 굳게 닫힌 창 안에 어떤 사연이 잠들어 있을까 상상하느라.



01 옛 일본우선주식회사(현 인천아트플랫폼 사무소)
02 옛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
옛 일본우선주식회사는 노란색 타일로 마감됐으나, 1888년 건립 당시 적벽돌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옛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은 1899년에 지은 의양풍 건축물로, 화강암을 견고하게 쌓아올린 외벽에 장대석을 대어 창을 냈다. 이들 조적식(組積式) 건축물은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직성을 강조하는 긴 창문을 둔 것이 특징이다.

03 옛 닛센해운(日鮮海運) 빌딩
장식주의적 요소와 모더니즘적 요소가 결합된, 1930년대 근대건축 양식이 인상적이다.

04 옛 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 2층 내부
1층은 현재 중구외식업지부 건물로 쓰이고, 2층은 오랜 세월 비어 있다. 외부 벽체와 기둥, 수직 창 등이 옛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05 옛 공화춘(현 짜장면 박물관)
짜장면을 처음 판매한 중국요릿집 공화춘. 1층에 4개, 2층에 8개의 창문이 있는데, 1층 출입문과 창호에는 결원아치를, 2층 창문에는 평아치를 두었다.

06 옛 인천부청사(현 중구청)
대표적인 모더니즘 건축물로, 수평의 긴 띠창, 커튼월(Curtain Wall) 기법의 유리창 등에서 모더니즘 양식이 강하게 표현됐다. 사진은 정문 옆에 난, ‘옥스아이(Ox Eye)’라고도 불린다.

07 옛 청국영사관 회의청
1910년 세운 건축물로 1970년대 이후 40년 넘게 비어 있다, 최근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출입문은 6개의 접이문이며, 좌우측에 각각 3개의 창문이 달렸다. 붉은 창문살이 아름답다.



1883년 2월 8일, 제물포항이 열리면서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신문물이 쏟아지고 파란 눈의 사람들과 중국인, 일본인이 몰려들었다. 힘으로 밀어붙인 개항이었다. 바다 건너온 사람들이 산 좋고 물 좋은 응봉산 자락에 터를 잡으면서, 조선인들은 배다리 주변으로 떠밀려야 했다. 그들 나라 양식의 건축물이 이 땅에 세워졌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식과 일본 의양풍(儀洋風) 건축물이 여기저기 솟아났다. 그렇게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은 ‘그들만의 세상’이 됐다.

개항장 거리를 걷다 보면 1899년에 지은 ‘옛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현 인천개항박물관)’을 만난다. 차가운 쇠창살이 박힌 창문 너머로 지난 시간을 떠올린다. 이곳은 이 일대 ‘옛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현 근대건축전시관)’ ‘옛 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현 중구외식업지부 건물)’과 함께 조선의 경제를 쥐락펴락했다. 이들 근대 금융기관은 일본 상인들의 상권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일본 영사관의 금고 역할을 했다. 본관과 함께 세워진 창고형 금고 건물에는 단단한 장대석을 위아래로 잇댄 작은 창이 나 있다. 쇠창살이 격자로 나 있어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도 없어 보인다. 이 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우리 것을 빼앗아 그들 탐욕을 채웠으리라. 오늘, 쇠창살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그날의 상처를 어루만진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하는 역사다. ‘옛 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은 개항기 근대 건축물 중에서도 옛 창문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곳은 1892년 일본 오사카에 본점을 둔 제58은행 인천지점으로 문을 열었다. 프랑스풍의 절충주의 양식의 건축물로 2층 발코니에

채광을 고려한 창인 인 도머(Dormer)가 나 있다. 좁다란 나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 닫힌 문을 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진다. 정면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난 수직 창으로 햇살이 가득 쏟아진다. 이 창문 너머로 변함없이, 신록이 돌아나는 아침이 열리고 낙엽지는 오후가 펼쳐졌을 것이다. 오랜 세월 단절된 공간이지만, 창은 여전히 바깥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건축물은 흘러간 시간을 기억하게 한다. 건물을 지은 자재로 그 시대의 환경을 헤아리고, 축조 기술로 그 시절의 문화와 사회상을 떠올릴 수 있다. 1930년대 개항장에는 ‘옛 닛센해운(日鮮海運) 빌딩(현 선광미술관)’과 같은 대형 건물이 세워졌다. 1932년경 지은 것으로, 인천에 남아 있는 4층 규모의 유일한 근대건축물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등 상당히 비싼 재료로 수직으로 쌓아올렸는데, 이는 이 일대가 경제의 중심지로 땅값이 높았을 것이라 추측하게 한다. 이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장식주의적 요소와 모더니즘적 요소의 결합이다. 초기 개항기 건축물에서 볼 수 있던 고전주의적 성향의 1층 문과 규칙적으로 네모반듯하게 난 2, 3, 4층의 창문이 대비를 이루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개항장 일대,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끝없이 열려 있다. 닫힌 문일지라도 그 너머 긴긴 시간을 가로지르면, 내일 새로운 역사에 닿는다. 저마다 시간을 품은 창이 건네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인다.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골목 공방에서, 삶을 연주하다

동고동락하는 고양이 깨순이,
깨미와 함께. 그의 음악에
귀 기울이는 청중들이 있는,
행복한 연주회.



공간은 곧 사람을 의미한다. 숨 쉬고 머무는 자리마다 살아온 시간과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이 스며든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아주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천을 본다. 그 두 번째로, 계산동 상가 골목에 있는 문병식(50) 현악기장의 공방을 찾았다. 그가 처음 나무를 만져 악기를 만든 건, 30여 년 전 도시 변두리의 공장에서도.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공장에서 골목까지

계산동 상가 골목, 불빛이 부영게 번지는 창 너머로 한 남자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 그 흔한 간판도 없다. 문을 열고 들어가 나무 먼지를 뒤집어쓰고 천장에 매달린 악기들을 보고 나서야, 이곳이 현악기 제작 공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의 진원지치고는 안타까울 만큼 좁고 누추하다. 작업 테이블 하나로 꽉차는 13㎡의 공간. 벽면에는 주인조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공구가 빼곡히 채워져 있다. 문턱 하나를 넘으니, 악기 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나무를 다루는 기계가 곳곳에 있다. 생명력 없이 쌓여 있는 나무판이 한 사람의 손길을 거쳐, 악기로 소리로 다시 태어난다니 그저 놀랍다.

문병식(50) 현악기장은 30여 년 긴 세월 나무를 만지며 살아왔다. 그간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나고 보니 아득히 먼 일처럼 느껴진다. 그가 만든 악기를 품에 안고 행복해 하던 사람들 덕에 고생이 낙이 된 시간이었다.

열일곱 고등학교 시절, 기술 시간에 서툰 솜씨로 처음 만들린을 완성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현악이라곤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우아한 곡선이 흐르는 몸체에서 나오는 악기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먹고살 길을 찾아 인천으로 왔다. ‘바이올린 제작자 구함’. 어느 날 골목 담벼락에 붙은 구인 광고가 시선에 들어왔다. 그렇게 악기를 만드는 삶이 운명처럼 시작됐다.



‘진짜 소리’를 찾는 여정

B 목재를 들여오는 항만을 품은 인천은, 일찍이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등 대형 악기업체들이 자리 잡으면서 악기 산업이 발달했다. 한 작은 공장에 들어가 바이올린 몸체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해 뜨기 전부터 저물기까지 나무를 자르고 깎고 붙이는 일을 했다. 선배들에게 맞아가면서 곳곳이 기술을 배웠지만 성에 안 찼다. 미국에서 들어온 바이올린 제작 원서를 구해 그림만 보고 따라 하다, 학창 시절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 우리말로 번역하며 어렵사리 공부했다.

그의 거친 손이 바이올린 몸체를 다듬느라 분주하다. ‘포항으로 보낼 자식’이라고 했다. 가격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모든 악기를 만든다. “악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지요. 누군가에게 마지막 악기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모든 공정에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해 소리를 완성하는 일이다.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어렵다. “생애 처음 악기를 완성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악기 제작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고 나면 머리가 하얗게 셀 만큼 힘든 과정이 이어진다. 30여 년 경력 현악기장의 ‘진짜 소리’를 찾는 여정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악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지요.
30여 년 경력 현악기장의 ‘진짜 소리’를 찾는 여정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의 삶을 연주하는 일

♫ 골목 어귀 작고 초라한 공방이지만, 여기까지 오기 결코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그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경인교대 앞에 6㎡짜리 지하 공방을 처음 열었다. 서울 낙원상가에서 나무판을 사다 악기로 만들어 팔았는데, 솜씨가 좋다고 소문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다 1997년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에 휩쓸렸다. 중국으로 건너가 4년간 악기 기술자로 밤낮으로 일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 작전동에서 165㎡ 2층 규모에 실용음악 학원까지 갖춘 번듯한 악기점을 냈다.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고 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결국 부도를 맞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세상 풍파에 쫓기다 여기 안착했어요. 비로소 제 집으로 온 것 같습니다. 비록 세를 내고 있지만, 언제든 나를 품어주는 공간이잖아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집보다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더 많다. 이 안에선 몸이 고되도 마음은 편하다.



“내가 만든 악기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악기가,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곳대 높은 클래식 음악계에서 공장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그는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힘들었던 일보다 그래도 뿌듯했던 기억이 더 많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한 여대생은 그가 수리비만 받고 만들어 준 악기로 꿈을 이뤄 음악 선생님이 됐다. 한 여중생은 그가 건네준 악기로 예고, 예대에 들어가 현악기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크레모나(Cremona)에서 현악기 제작자의 길을 걷고 있다.

“제가 만든 악기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요.” 나무 먼지가 부유하는 공방 천장에는 주인을 찾는 악기들이 도열해 있다. 그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날을 기다리는...



365일
쉬지 않는 등대처럼,

**인천 바다는
우리가 지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아닌,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있다.
그것도 오로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인천 바다를 믿음직스럽게 지키는 해양경찰이다. 깊은 밤, 자신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항파출소의 해양경찰관들을 만났다.

글 김윤경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 24시간 잠들지 못하는 해양경찰

칠흑같이 어두운 밤, 레이더를 응시하는 눈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쉽지 않을 만큼 깜깜한 바다 위를 18t급 신형 연안구조정은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가며 인천 앞바다를 살살이 살핀다.

“레이더에 찍히는 물표의 크기와 동선, 이동 속도 등을 보면 어떤 배인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다의 특성상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합니다.”

선박 하나하나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해양경찰의 연안구조정은 모두가 잠든 시각에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늘 긴장 상태다. “야간 항해는 항상 신경 쓰이죠. 큰 배들은 정해진 바닷길로 다니면 되지만, 저희 연안구조정은 상황에 따라 항로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박 전까지는 절대로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해양경찰이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에 오늘도 어둠 속에서 배를 몰고 있다는 백수현(32) 경장. 연안구조정의 하루는 쉽지가 않다.

늦은 밤,
자신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해양경찰들



비상 경보등이 울리면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한다.
야간에 울리는 경보등은 온몸의 세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실종자 수색은 구조정 밖에서 육안으로 진행해야 더욱 정확하다.



>> KOREA COAST GUARD



해경의 출동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신고를 받은 시간부터 배의 시동을 걸고 훗줄을 풀어 출발해 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수치로 정한 ‘출동시간 및 도착시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 바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팔미도에서 영종대교까지 148km를 관할하는 인항파출소는 인천에서도 가장 바쁜 해양경찰 파출소로 통한다. 하루 평균 1,100여 척의 선박이 출입하고, 연간 50만여 명의 행락객들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항파출소 직원은 총 33명(해양경찰 29명, 의무경찰 4명). 넓은 해역을 담당하기에는 버거울 때도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은 24시간 대기하는 것이 일상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몰라 교대 근무를 하며 매일 출동을 기다린다. 야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해경. 3교대로 연중무휴 근무를 하는 인항파출소는 늘 해상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1년 365일 밤새도록 인항파출소의 불은 꺼지는 경우가 없다. 이런 이유로 2017년에는 ‘해양경찰 우수파출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 본능에 따라, 위험 속으로 뛰어들다

“앗! 불이다.”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몸은 이미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23일 오전 8시 40분, 인항파출소 소장 최종대(54) 경감은 연안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직원들을 이끌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최 소장은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솟아오르는 선박을 보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소화 호스를 들고 배에 올라탔다. 이내 조타실 유리창을 깨고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최 소장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많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곳이라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다. 최 소장은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으나 6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 열아홉 어린 나이에 해양경찰의 길에 들어선 최 소장은 현장 근무에 잔뼈가 굵은 해양경찰 35년의 베테랑으로, 영종도 하늘바다

파출소, 연평도파출소를 거쳐 현재 인항파출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인항파출소가 관할 범위가 넓고 항상 사건·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해양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나’보다 ‘남’이 우선인 삶

몇 년 전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경비정을 타고 출동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8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진 뒤 다시 해경으로 복귀한 전순열(48) 경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은 해양경찰로서 늘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한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바다를 지키는 일은 해양경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고, 해양경찰로서 남을 구조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바다에 관한 이미지를 꼬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양지나 밝은 느낌의 바다를 생각하는데, 저희 해양경찰들은 칙칙같이 어두운 바다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바다는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수상 레저나 바다낚시 활동 시 안전에 대해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김데리사(48) 경위. “구명조끼 착용하시라고, 물때니 갯벌에서 나오시라고 계도해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고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의 바람은 단 한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바다는 해양경찰이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삼 가슴에 깊게 남는 밤이다.

술술~
세계를 사로잡는
전통의 맛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 전통주다. 농사일에 지칠 때 한잔, 기쁠 때 한잔, 위로 할 때 한잔... 술지geme를 양식 삼아 어려운 시절을 넘기기도 했던 막걸리는 우리 민족에게 는 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천은 전통주의 역사가 깊다.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혹은 전통을 새로운 트렌드와 접목해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술이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 주를 찾았다.

글 김윤경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우리의 문화 콘텐츠, ‘막걸리’

막걸리는 우리나라 각 지역 혹은 집안에서 쉽게 만들어 먹던 술로, 농부들의 갈증을 덜어주는 주류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던 막걸리가 일제강점기인 1916년 ‘주세령’에 따라 개인이 술을 빚는 것이 금지되는 제한면허제가 시행됐다. 이때부터 집집마다 내려오던 다양한 가양주 문화는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양조장 중심의 술 문화로 바뀌게 됐다. 광복과 전쟁을 겪은 후 1960년대 우리 국민들은 다시 막걸리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쌀이 주원료였던 탓에 전후 식량 부족을 우려한 정부는 쌀로 술 빚는 것을 금지하는 양곡법을 시행한다. 이후 경제 성장으로 쌀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다시 쌀막걸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막걸리가 저렴한 가격에 건강과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막걸리가 살아 있는 발효 웰빙 음료로 인식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어느새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닌 우리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온수양조장(옛 금풍양조장)에서는 일제강점기 ‘금학 약주’라는 상표로 약주를 생산했었다. 당시 주소가 ‘강화도 길상면 전등사 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백 년 전통 그대로
———— 강화 온수양조장



지금은 폐쇄된 공간이지만, 양조장 천장에는 옛날에 누룩을 만들던 틀과 술독의 흔적이 남아 있다.



주형국 씨의 할아버지 주만석 씨가 사용하던 주정계(알코올 도수 측정계). ‘1923년 주만석’이라고 쓰인 글씨가 남아 있다.

강화도 길상면에 위치한 온수양조장(옛 금풍양조장). 100여 년 된 목조 건물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전히 한결같은 전통방식으로 술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더 경이롭다. “정확하게 언제 건물이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길상초등학교 지을 때라고 들었으니까 아마 1919년쯤? 이 건물은 원래 처음부터 양조장으로 설계된 건물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4대에 걸쳐 온수양조장에서 가업으로 술을 빚고 있다는 주형국(60) 씨는 우리나라의 인삼막걸리가 온수양조장에서 시작된 술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전쟁 이후 강화도에 상품 가치 있는 인삼 외에 팔고 남은 파삼이 많았지. 그때는 하도 삼 뿌리가 많아서 집집마다 반찬으로 무쳐 먹었는데, 그런 파삼을 구매해서 막걸리에 넣기 시작한 게 인삼막걸리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루가 아닌 진짜 인삼이 들어간 인삼막걸리를 찾는 사람은 온수양조장에서 생산된 인삼막걸리를 선택한다고. 현재 온수양조장에서는 강화쌀과 살아 있는 효모로 숙성해서 만든 ‘민족생막걸리’와 깔끔하고 깊은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삼막걸리’, ‘인삼동동주’를 생산하고 있다.

강화 온수양조장
위치 강화군 길상면 삼량성길 8
문의 032-937-7712

송도항(삼양춘)
위치 남동구 호구포로 50, 819-1호
문의 032-851-8979



쌀과 천연 전통 누룩을 곱게 체로 걸러 팔팔 끓은 물을 부어 수차례 반죽을 한다. 빻은 술은 항아리에서 발효와 저온 숙성의 기간을 거친다.



“예전에는 강화군 내 길상, 불은, 양도, 화도, 선원의 5개 면을 비롯해서 강화 북부 지역까지 하루 6,000ℓ(30드림)를 공급할 정도로 영업이 활발했지요. 지금은 인력도 많이 줄고, 유통도 쉽지 않아 강화 인근에서만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뒤를 잇겠다고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엔 생산기술 좋은 공장들이 많아서 우리같이 작은 규모는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정직하게 지켜내겠다는 주 씨의 바람은 온수양조장이 멈추지 않는 것. 부드럽고 짭싸름한 강화 인삼막걸리에는 그의 마음이 소박하게 담겨 있다.

외국인의 입맛까지 유혹하다
————— 2018 대한민국 주류대상 ‘삼양춘’ —————

지난해 11월 28일 제6차 OECD 세계포럼 인천의 밤 공식 건배주로 선정된 ‘삼양춘’. 이날 세계인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춘은 ‘송도항’의 강학모(58) 대표가 10여 년간 연구 끝에 선보인 술이다. 강 대표가 처음부터 술 전문가는 아니었다, “금융 공기업 부장으로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천천히 살고 싶다는 생각에 2008년 말 명예퇴를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전통주였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잔치 때마다 술을 빻았던 게 생각났어요. 술 빻는 솜씨가 좋았던 어머니께 지도를 받고 가양주연구소 등 전통주 교육기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삼양춘은 ‘세 번 빻는다’는 의미의 ‘삼양’과 ‘술은 겨울에 빻어서 봄에 마셔야 맛있다’는 의미를 가진 ‘춘’이라는 한자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일반적인 술들이 한 번만 빻고 제품화되는 것과는 달리 삼양춘은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세 번을 빻고 70~100일 동안 숙성을 거친 프리미엄 발효주이기 때문에 일반 곡주와 달리 뒷맛이 깨끗하다. 원료로 인천 강화섬쌀, 전통 누룩, 물 세 가지만 사용하고 인공 첨가물은 전혀 쓰지 않는다. 이런 노력 끝에 삼양춘 약주는 ‘2018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베스트 오브 2018’을 수상했고, 삼양춘 탁주는 ‘대상’을 수상했다. 전통적인 방법과 정성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그의 고집스러움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인천 전통주

인삼동동주·인삼막걸리·민족 생막걸리

진짜 인삼이 들어간 인삼막걸리를 찾는다면 온수리양조장에서 생산된 인삼막걸리를 선택해야 한다. 탄산도 적절히 느껴지고, 부담 없는 목 넘김은 그 전통 만큼이나 깊이와 무게감이 느껴진다.



삼양춘

투명한 노란빛의 삼양춘 약주의 첫 맛은 달콤하며 끝 맛은 씹싸름한 매력이 있다. 탁주는 뽀얀 빛깔에 강하지 않은 단맛과 천천히 올라오는 산미가 전체적인 술 맛의 조화를 이룬다.



소성주

소성은 인천의 옛 이름이다. 소성주는 부평에 있는 인천탁주합동제조장에서 만든다. 인천의 대세 막걸리인 소성주는 천연 탄산이 가득해 상쾌하고 청량하면서도,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찬우물막걸리

강화 지역에서 유명한 약수인 ‘찬우물’을 사용한다. 지하 303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를 술 재료로 사용하고, 발효제로 누룩 대신 유산균을 사용한다. 청량감이 있고 뒤끝이 깨끗하다.



송도

‘월향’의 쌀막걸리는 ‘송도’라는 이름을 달았다. 송도 매장 내 소규모 양조장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막걸리로, 달달한 맛으로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길 위의, ‘혼밥’ 한 그릇

기사식당,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고픔과 고단함을 달래는 곳. 안마, 세차 등 그들만의 ‘우대’ 서비스가 있던 시절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식당의 풍경도 바뀌어, 이제 삼삼오오 모여 정겹게 식사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혼밥(혼자 먹는 밥)’ 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때론 뜨끈한 밥 한 그릇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힘을 준다.

24시간 열린 식당

택시 기사가 분주한 도심 한가운데를 달려 기사식당에 들어선다. 해가 중천에 걸리고 나서야 겨우 먹는 첫 끼. 뜨끈한 밥 한 그릇이 오늘도 살아갈 힘을 준다.

부평구 십정동 십정사거리 근처에 있는 ‘까치기사식당’은 간판을 내건 지 30여 년 됐다. 이 일대는 일명 십정동 기사식당 촌으로 불렸다. 택시 기사는 물론이고 수인산업도로를 따라 인천과 수원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 기사들이 자주 찾았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사식당이 10여 곳 넘게 몰려 있었다.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이곳 하나만 남았다.

정경래(50) 씨는 어머니 한재숙(78) 어르신과 함께 20년째 식당을 꾸려가고 있다. 외삼촌이 운영하던 9㎡ 남짓한 작은 가게를 물려받아 145㎡ 2층 규모로 키웠다. 그동안 수많은 기사들이 이 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다.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기사들을 위해, 기사식당의 문도 24시간 열어놓았다.

어머니는 거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가 높은 굴로 음식을 만들었다. 기사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 요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뚝배기 대신 철판에 볶아내는 요리법을 개발했다. 칼칼하게 입안에 착 감기는 감칠맛도 그만이다. 그 맛이 그리워, 이미 오래전 운전대를 놓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 집을 드나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한 끼를 위해,
어머니는 오늘도 어제처럼 묵묵히 밥 짓고
음식을 만듭니다.

휴게소이자 사랑방

기사에게 기사식당은 단순히 밥집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들에게 이곳은 몇 시간 거리를 달려온 지친 몸을 쉬는 휴게소이자 동료들과 어울리는 사랑방이다. 15년 전에는 이 식당 한편에 운전대를 놓고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온돌방이 있었다.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기가 있고 세차를 해주기도 했다. 지금 기사들을 위한 ‘우대’ 서비스는 밥을 듬뿍 퍼주고 식사 값을 깎아주는 정도다. 식당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혼자 오는 사람보다 삼삼오오 모여 정겹게 식사하는 사람이 더 많다. 맛집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기사들에게 인정받은 식당이라고 소문나면서 일반 손님의 발걸음도 늘었다. 기사들도 단골 기사식당을 찾아다닐 만큼 여유롭지 않다. “택시가 너무 많아져 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세요. 먹고살아야 하니 몸 생각 안 하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300km 이상, 인천에서 부산 못 미치는 거리를 매일 달리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삼촌이 주인이던 시절부터 식당에 드나들던 정경래 씨는 형, 아버지뻘의 기사들이 남 같지 않다. 홍재창(54) 씨는 스물여섯 살부터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1990년대 초반 포니 택시로 시작해 회사 차를 16년, 개인택시를 12년 몰았다. 기본요금이 750원이던 때, 하루 네다섯 시간 정도 달려도 사납금을 거뜬히 채울 수 있었다. 열심히만 하면 먹고살 만한 시절이었다. 지금은 대중교통수단이 좋아지고 경쟁이 심해져서, 회사 택시 기사들이 사납금만 빠르게 채우는 날이 수두룩하다. “돈을 벌기 위해 교대 없이 하루 종일 일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건강이 나빠지고 병으로 저 세상으로 간 동료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다시 길을 나서다



택시 기사 홍재창 씨. 가족을 위해 ‘혼밥’ 하는 아버지.
삶의 무게를 짊어진 그의 뒷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한 칸짜리 택시 안이 생활의 터전인 사람들. 인천에만 택시 기사는 1만4,000여 명이다. 저마다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다. 기사식당은 그들이 잠시나마 시동을 끄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이다. 그 안에서 따뜻한 한 끼 식사로 든든히 속을 채우고 지친 하루를 위로받는다.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일을 더 해야 했어. 난 빵점짜리 아빠예요.” 홍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두 딸을 둔 아버지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10년 탄 개인택시를 팔고 회사 택시를 몰던 때가 있었다.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짜리 월세에 살다 다시 일어났다. 그때부터 술 담배를 끊고 좋아하던 축구 심판 일도 멀리했다. ‘운동장에 있던 시간에 운전대를 잡았더라면 지금 가족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열심히 일한 자신을 위한 작은 즐거움조차 사치라며, 아버지는 자책한다. 홀로 밥을 먹던 택시 기사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길을 나선다. 또 어느 길로 달려갈 것인가. 고단함이 묻어나는 그의 뒷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삶의 한가운데를 달리는 사람의 또 다른 한 끼를 위해, 기사식당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까치기사식당

부평구 백범로 526

☎ 032-426-0613

TAXI

기사식당. 그 맛의 기록

맛집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기사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곳.

돼지불백, 된장찌개... 특별할 것 없는 메뉴들이 '기사식당'이란 이름과 만나면 기대감이 배가된다.

개성으로 양념하고 정성으로 차려내는 맛의 기록, 인천 기사식당 탐미록.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골목기사식당

당황하지 않는 손님은 단골 인증. 자리 잡고 앉는 순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푸짐한 한 상이 차려진다. 매일 바뀌는 '오늘의 메뉴'는 딱 하나. 제철 맛은 재료와 그날그날 날씨 등을 고려한 베테랑 주인장의 선택은 늘 옳다. 미역국과 해장국, 각종 찌개 등 집밥의 정성과 푸근함을 맛볼 수 있는 곳.

영업시간 - 오전 7시~오후 7시 30분
주 메뉴 - 매일 바뀐다. 1인당 5,000원
주소 - 미추홀구 인주대로 305-5



골목
기사식당



청학
기사식당

청학기사식당

두툽한 생선살 아무지게 발라 흰 쌀밥 위에 올려 한입 크게 먹는 맛이란. 국민 생선 고등어, 삼치, 갈치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주인장 특제 소스에 듬뿍 찍어 먹는 생돈가스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팔리는 효자 메뉴. 공깃밥 하나를 통째로 얹어주는 통 큰 인심은 덤이다.

영업시간 - 오전 5시~오후 10시
주 메뉴 - 생돈가스·생선 구이 7,500원
주소 - 연수구 용담로 46
문의 - 032-812-0057



복개천
기사식당

복개천기사식당

복개천에 있어 이름도 복개천기사식당. 메뉴도 맛도 가게 이름만큼이나 정직하고 정갈하다. 질 좋은 돼지고기에 갖은 양념 두루 볶아내는 제육볶음은 가게의 대표 메뉴. 상추에 싸서 먹지 않고 고기와 함께 밥에 비벼 먹는 것이 이색적이다. '싸고 배부르고 맛있게'가 이 집만의 영업 전략.

영업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11시
주 메뉴 - 제육볶음 7,000원, 순두부찌개·된장찌개 5,000원
주소 - 부평구 평천로 146-1



황허장
기사식당

별말기사부페

자리에 앉기 전 밥값 먼저 계산하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제육볶음, 닭볶음탕, 뼈해장국, 삼계탕 등 요일별로 달라지는 메인 메뉴만도 푸짐한데, 갖가지 사이드 메뉴와 밑반찬, 후식까지 눈치 볼 것 없이 한번에 OK. 인천과 서울, 김포를 아우르는 위치 덕에 찾는 이들도 메뉴만큼이나 다양한 곳에서 온다.

영업시간 - 오전 9시~오후 8시
주 메뉴 - 뷔페 1인당 7,000원
주소 - 계양구 별말로573번길 3
문의 - 032-543-4050



별말기사
부페

황허장기사식당

메뉴에 대한 선입견을 깨부순 중국 음식 전문 기사식당. 짜장면과 짬뽕은 기본, 새우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불맛' 나는 소스와 쫄깃한 면발, 아삭한 오이가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는 짜장면이 최고 인기 메뉴. '회전'이 중요한 기사식당인 탓에 탕수육과 같은 요리 메뉴는 없다.

영업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주 메뉴 - 짜장면 4,000원, 짬뽕 5,000원
주소 - 동구 동산로 28
문의 - 032-777-0820



SERIES 2.

CANADA TORONTO

온타리오호 북쪽 연안에 있는 캐나다 제1의 도시 | 면적 630km² | 인구 약 273만 명

인천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 ——
세계가 인정한 ‘살고 싶은’ 도시 탐방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자유롭게 교류하고 편리하게 통하도록

우리 시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소박하지만 핵심이 담긴 메시지다. 시민 참여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살고 싶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두 번째는 영국의 정치·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선정한 ‘2018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 10’에 이름을 올린 캐나다 토론토다.

글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진 셔터스톡



캐나다를 대표하는 매력 도시

캐나다 동남부,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다. 1998년 서로 나뉘어 있던 6개 지역이 합쳐져 현재의 토론토가 됐으며, 도시명은 ‘물속의 숲’ 또는 ‘풍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름에 걸맞게 토론토는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했고, 근대에 들어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 걸쳐 있는 오대호에 인접한 지형학적 이점을 살려 교역과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북미 경제의 중심지이자 금융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미디어 산업의 성장으로 세계 글로벌 도시 중 하나로 불리며, 여러 도시 랭킹 조사에서도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 상위권에 꼽힌다. 토론토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엄청난 도시 다양성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도시인 동시에,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영화제와 축제 등 즐길 거리가 많은 신나는 도시다. 실제로 150개 이상의 소수 민족이 100여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여러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되어 토론토만의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토론토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과 IT, 문화 산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범죄율이 낮아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풍부한 녹지 공간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과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 편의를 우선한 대중교통 시스템

토론토가 살기 좋은 가장 큰 이유로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들 수 있다. 대중교통 체계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이 조성된 친환경적 도시를 ‘트랜짓 시티’라 하는데, 토론토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다. 토론토 대중교통 체계는 크게 버스, 지하철, 노면 전차로 나뉜다. 세 가지 시스템 모두 토론토 교통국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2018년 현재 4개의 지하철 노선과 69개의 역사, 약 150개의 버스 노선과 11개의 노면 전차 노선이 운영 중이다. 토론토 대중교통의 핵심은 버스로, 시내버스는 매일 24시간 운행되고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낮 시간대와 다른 노선으로도 운행된다. 2013년부터는 굴절버스도 도입되어 운행 중에 있다. 토론토 지하철은 1954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캐나다 최초다. 4개의 지하철 노선은 도시를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지르는데, 노선을 따라 20개가 넘는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어 탑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현재 북미에서 운행 규모가 가장 큰 토론토 노면 전차 시스템의 대부분 노선은 이미 19세기부터 운행됐다. 주로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시내 구간과 오대호 인근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보통 도로 중앙 차선을 노면 전차가 이용하고 그 옆 차선을 버스와 일반 차량이 이용한다.



버스와 전차, 지하철을 자유롭게

토론토 대중교통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3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의 환승 과정에 있다. 대부분의 버스 노선과 노면 전차 노선은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 환승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토론토를 거쳐 광역권으로 연결되는 온타리오주 대중교통 체계인 ‘GO 트랜짓’ 역시 대부분 역사와 가깝다. 요금 체계에 있어서도 시 경계 내에서는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환승이 자유로우며, 13세 이하 아이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토론토 대중교통 체계가 우수한 이유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한 승객을 위한 배려에 있다. 버스 대부분이 휠체어와 유모차, 카트 등의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이고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하기 쉽다.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휠체어 이용이 쉽고, 폭이 넓은 지하철 개찰구와 승강장 내 특수 가장자리 마크 표시 등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뛰어나다. 토론토는 2017년 미국 대중교통위원회가 선정하는 북미 최고의 대중교통상을 수상, 그 우수함을 증명했다.

토론토가 살기 좋은 도시인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란 일상생활에 있어 교육과 교통, 의료, 복지, 문화, 체육, 보육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잘 보급되고, 경제활동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쉽게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토론토를 거쳐 광역권으로 연결되는 온타리오주 대중교통 체계인 ‘GO 트랜짓’



토론토는 여러 요인 중에서 특히 다양한 대중교통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와 토론토는 최대 규모의 광역권에 속해 있는 대도시이며, 다양한 문화권이 융합되어 있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지하철과 버스, 철도 등 인천 시내 대중교통 체계가 효율적인 연결과 지역 내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갖출 경우,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해질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추가되면 인천시는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푸른 새벽, 백령에서 100x40 acrylic



백령섬에서 새벽별 100x40 acrylic

백령도를 그리다
삶을 그리다

글·그림 최정숙 화가·해반문화 이사장

최정숙은 중구 송월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인천에 살면서 아버지의 삶이 깃든 백령도를 그리고 있다.



북녘 월내도에 별이 95x63 acrylic

누구나 어렸을 때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부모에 의해 선택된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 어미가 되고 1990년대 초부터 인천에서 지역 문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천의 역사 문화를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화마을이 된 중구 송월동에서 태어나 응봉산 만국공원과 차이나타운. 그리고 만석동, 화수동 일대를 코흘리개 동무들과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걷던 옛길들과 골목 풍경은 아직도 어릴 적 모습으로 꿈속에서 살아납니다.

저의 부모님은 왜 송월동에 동지를 틀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고향은 서해 최북단, 북녘 땅이 더 가까운 백령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3년 정전이 되고 백령도는 황해도 장연군에서 남녘 땅으로 편입되어 섬에서 물으로 가는 뱃길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북에서 많은 피란민들이 인천으로 들어와 정착했습니다. 부모님도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1954년에 하인천역 근처 당

시 연안부두와 가까운 송월동에 적산 가옥을 마련해 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늘 백령도 친척을 비롯해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풍랑으로 뱃길이 끊어지면 며칠씩 묵어가는 ‘백령도 최 면장집 셋째 딸’이었습니다.

백령도에 처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대식구다 보니 어머니가 당시 다섯 살인 저를 백령도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겼습니다. 스무 시간 하루 꼬박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가는데 어린 저에게는 그 캄캄하던 밤바다와 짙은 해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상으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과 삶에서는 자기도 알 수 없는 계기가 오나 봅니다. 백령도 두 무진을 첫 그림으로 그리면서 백령도를 가슴으로, 그리움으로 그립니다. 어린 시절 칙칙같이 캄캄한 여름밤, 할머니 댁 너른 마당 느티나무 아래 명석을 펴고 동네 아이들과 누워 있을 때, 밤하늘에 무수히 박혀 있던 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바다 45.5x53 oil

국가대표 수영선수, 수영용품 멀티숍 소상공인으로...

김은경 ‘수영하는 사람들 SDG’ 대표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결혼해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아오던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저만치에 지난날의
은경이가 보이는 겁니다.
물에서 자라고
꿈꾸던 그 은경이가 말이죠.

시
민
시
장
·
김
은
경



“내가 신고 싶은 것보다는 내 발에 꼭 맞는 걸 신어야 해요. 오리 발은 옆에서 감싸주는 느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인터뷰 도중 손님이 들어오자 반사적으로 일어선 그가 설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손님을 향한 시선이 겨울 하늘의 별처럼 반짝 반짝 빛났다. 인천 출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은경(44).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가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따낸 금메달과 같은 ‘타이기록’을 가진 그는 이제 푸른 물살 대신 세상의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었다. 수영용품 전문 매장 대표로, 멋진 여성 기업인을 꿈꾸는 소상공인으로.

‘수영하는 사람들 SDG’ 대표인 김 씨가 영종도에 매장을 차린 이유는 어려서 시작한 수영인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결혼해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아오던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저만치에 지난날의 은경이가 보이는 겁니다. 물에서 자라고 꿈꾸던 그 은경이가 말이죠.”

수영을 처음 접한 것은 신광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체구가 작은 큰딸을 걱정했던 부모님이 그를 학교 수영부에 가입시켰다. 건강을 다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국가대표란 타이틀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1년 만에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은경은 6학년이 되면서 최연소 상비군으로 성장한다. 승승장구하던 은경에게 시련이 닥친 건 선화여중 2학년이 되던 해였다. 사춘기에 더해 슬럼프가 불쑥 찾아들었다. “메달은 계속 따는데 도무지 기록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수영 도구를 모두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께 더 이상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지요.”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어린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고민하던 은경은 일주일 만에 주섬주섬 수영 가방을 챙겨 들었다. “자유형이던 주 종목을 개인 혼영으로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했어요.” 맹연습으로 위기를 극복했건만, 인화여고 1학년이 되던 해 은경은 또 하나의 시련에 맞닥뜨린다.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수영장에 데려다주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진 것이다. “새벽이었어요.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밟더니 ‘은경아, 아빠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다. 혈압이 있던 아버지는 나흘 뒤 영원한 여행을 떠났다.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빠가 슬퍼할 것이었다. 물속에서 흘린 눈물들이 수면 위를 부유하던 그해 가을, 은경은 마침내 개인 혼영 국가대표로 발탁된다. 이후 선수 생활 동안 270여 개에 이르는 메달을 목에 걸었고 인천시청 소속 선수, 남부교육청 코치 등을 역임하다 2000년 결혼하며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선다. 2013년 영종하늘도시에 정착하고 보니 외동아들도 부쩍 자라 있었다.

“이제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구나 생각하던 차였어요. 동네에서 수영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회원들이 수영용품 파는 가게가 없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말없이 수영인의 삶을 응원해 준 수영용품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다. 그렇게 운서동에 문을 연 게 ‘수영하는 사람들 SDG’다. 그의 가게엔 고품질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용품들이 즐비하다. 수영 전문가이다 보니 수영용품을 보는 식견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고향은 어떤 곳일까.

“인천은 글로벌 도시입니다. 개항 이래 나라 안팎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잖아요. 내외국인 모두가 행복한 국제도시를 만드는 데 다 함께 손을 맞잡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물을 당겼던 그의 손길이 정성스레 수영용품을 매만졌다. 그가 골라주는 수영복을 입으면 왠지 국가대표가 된 기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CULTURE CALENDAR

FEBRUARY 2019

02

이달의 展

우리가 사랑한 그림 : 한국근현대 미술 걸작展
1월 4일(금)~2월 24일(일)
롯데갤러리 인천터미널점

제37회 최경수 개인전
1월 26일(토)~2월 1일(금)
갤러리지오

최은자 개인전 조각
2월 9일(토)~22일(금)
갤러리지오

김정열 개인전
2월 15일(금)~21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사)민화진흥협회,
2019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
‘부귀영화’ 기원전
2월 15일(금)~27일(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2층)

그린메이커 10인 10석
2월 15일(금)~27일(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2층)

사람이야기전
2월 22일(금)~28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너와전
2월 22일(금)~3월 8일(금)
갤러리지오

01
치즈 그리고 양다일 CONCERT-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8만8,000원,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① 1566-6551

09
어린이 뮤지컬 ‘고고다이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전석 4만원
① 031-294-4232

액션 뮤지컬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 인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① 1566-6551

10
어린이 뮤지컬 ‘고고다이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4만원
① 031-294-4232

액션 뮤지컬
‘미니특공대X-대결! 제노스군단’- 인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① 1566-6551



13
커피콘서트 스페셜 I
이원국발레단 ‘사랑의 세레나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① 1588-2341



가족 뮤지컬 ‘백설공주’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0시 10분~11시 15분
전석 1만원
① 070-7666-7915

14
커피콘서트 스페셜 II
테너 김세일 & 피아니스트 손민수
‘시인의 사랑’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① 1588-2341

16
커피콘서트 스페셜III
윤복희 콘서트 ‘여러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7시
전석 3만원
① 1588-2341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 시즌2’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R석 4만4,000원, S석 3만3,000원
① 02-555-0822~3

16
꿈마을 어린이 청소년 예술단 창단 연주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3시
① 032-508-1882

17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 시즌 2’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3시 30분
R석 4만4,000원, S석 3만3,000원
① 02-555-0822~3

통일로 가는 유랑열차 송해 쇼- 인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2시·6시
장수석 9만9,000원, 효도석 8만8,000원,
행복석 6만6,000원
① 032-761-1380

리드챔버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5시
무료
① 010-3277-6105



아트센터 인천
하이든의 천지창조로
2019 시즌 오픈



아트센터 인천이 ‘더 크리에이션’이라는 타이틀로 올 시즌 기획 공연을 진행한다. 오프닝 작품은 스페인의 비주얼 아트 그룹 ‘라 푸라 델스 바우스’가 제작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다.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홀과 대만 가오슝 아트센터 등 전 세계 유명 극장의 오프닝을 장식하며 화제가 된 이 작품은 아트센터 인천에서 국내 초연으로 단독 개최된다. 1,000리터가 넘는 수조, 와이어 연출을 위한 크레인, 프로젝션 맵핑 등 기존 클래식 공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독창적 무대 연출을 선보이며 7일간의 천지창조를 음악과 함께 펼친다. 이번 공연은 고음악의 디바 소프라노 임선혜, 빈 국립극장과 라 스칼라에 데뷔한 혜성 같은 젊은 베이스 바리톤 토마스 타찰, 테너 로빈 트리첼러가 솔리스트로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
가족 뮤지컬 ‘바다탐험대 옥토넷 - 불가사리의 모험’-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전석 5만원
① 1599-9354



소리극 서편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5시
전석 2만5,000원
① 032-500-2001

24
가족 뮤지컬 ‘바다탐험대 옥토넷 - 불가사리의 모험’-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5만원
① 1599-9354

일시 3월 1일(금)~2일(토) 오후 5시
장소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티켓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문의 아트센터 인천 ① 032-453-7700

※ 상기 공연·전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용동 초가집 칼국수의
‘2018, 오래된 가게’ 전시 모습

전시장에 문을 연 노포 老鋪

글 배성수 인천도시역사관장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는 어디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한 조사, 그리고 2년
에 걸친 조사 결과를 전시장에 풀어놓는 조금은 특별한 기획이었다. 처음 기획 의도
는 50년 넘게 이어온 오래된 가게의 특별한 운영 방식과 철학을 조사하고 이를 전시
로 소개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접한 그들의 모습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치열하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쌓여 50년의 세월을 만든 것이다. 전시 방향을 수
정해야 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운영 철학과 비법을 소개하기보다는 내일은 또 어
떻게 버텨야 하나를 걱정하는 오래된 가게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오래된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 바
람이 모인다면 노포의 수명이 조금은 더 길게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았다.

- 01 허바허바사장 간판 및 관련 자료
- 02 평양옥 성냥갑
- 03 잡화점 조흥상회의 관련 자료



1968, 오래 전 가게

‘노포’의 기준이 되는 운영 기간은 개업 후 50년 이상으로 정했다. 즉,
1969년 이전에 개업한 가게를 ‘노포’로 본 것이다. 대개 30년을 한 세
대로 봤을 때, 50년이라는 시간은 두 세대가 끝나가는 시기이며 그다
음 세대로 가업을 이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또 1960년대
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던 때이
자, 광복 후 인천이 도시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노포 창업
연대의 하한이 되는 1960년대, 인천에는 어떤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
었는지 궁금했다. 그런 이유에서 첫 번째 코너의 주제를 ‘1968, 오래
전 가게’로 잡았다. 1960년대 말 인천에서 성업 중이던 상점 6,779개
중 지금까지 문을 열고 있는 가게는 69곳에 불과했다. 5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6,700여 개의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인데 뜻있는 몇몇 분
들이 폐업한 가게의 물건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들의 자료
를 빌려 없어진 인천의 오래 전 가게를 복원할 수 있었다.

2018, 오래된 가게

두 번째 이야기 ‘2018, 오래된 가게’는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소
개하는 코너로 꾸몄다. 인천에서 5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오
래된 가게는 모두 69곳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를 거부하는 가게도 여
럿 있었기에 실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69곳의 노포 중
12곳에서 유물을 빌려주었다. 1970년대 초 개업해서 조사에는 포함
되지 않았지만,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는 가게 네 곳도 선뜻 자료를
내주었다. 이를 음식점, 의류·제화점, 문구점, 기타 업종으로 분류한
뒤, 그들의 50년 세월을 전시로 풀어냈다. 마지막에는 도심에서 사라
져가고 있는 오랜 가게의 흔적을 렌즈에 담은 김보섭 작가의 ‘양키



- 01 용동 도성라사
- 02 신포동 신포주점
- 03 산곡동 회락촌
- 04 신포동 의흥덕양화점

사진 조오다 작가

시장' 사진을 걸었다. 용동 초가집 칼국수를 3대째 이어오고 있는 박현주 사장의 내레이션으로 에필로그를 대신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를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영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몇 줄 텍스트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주위에서는 할머니와 엄마의 손때가 묻은
초가집 칼국수를 계속 이어가기 바라지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수를 밀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가게 문을 열 생각입니다.



신일상회의 돈통

인천 노포老鋪, 사는 곳을 담다

조사 당시 사진 작업을 함께했던 조오다 작가의 사진을 모아 ‘인천 노포(老鋪), 사는 곳을 담다’라는 주제의 작은 사진전도 열었다. 조사자가 아닌 사진작가에게 노포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를 보여 주고자 했다. 아울러 전시를 보며 가게의 모습에 대한 관람객의 궁금증을 현장감 있는 사진으로 풀어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조사된 노포 중 18곳을 선별했고, 사진 작업을 하며 느꼈던 노포에 대한 감성을 풍경, 손님, 방식, 마음,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6개 주제로 분류했다.

“가게가 시간의 무게를 버티는 동안 손님들 추억도 쌓여 힘을 보태고 있었다. 그곳에 남겨진 수많은 기억들은 오래된 가게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손으로 끝낼 것이라 했고 누군가는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시간을 담은 가게들을 이웃으로 두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 걸친 노포 조사를 마무리했고 이를 전시로 엮어보았다. 5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긴 세월일 수도 있다. 이제 그들은 내일도 오늘과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노력이 세상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오래된 가게, 인천 老鋪^{노포}’전


전시 기간
2월 28일(목)까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 휴관)

전시 장소
인천도시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 아암홀,
다목적실 소암홀

문의
인천도시역사관 ☎ 032-835-6026

IMAGE
NEWS

인천시 착한 화폐
‘인천e음’



인천 관내 사업장 #17만5,000여 개 점포(99.8%)에서
사용 가능 #충전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결제 IC카드로 안전하게

01

마음e음, 시민e음, 혜택e음



사용만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절감 #매출 증대 효과
#사용액의 4~15% 캐시백(포인트) 및 할인액으로 제공
#연말 정산 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

02


‘인천e음’이 스마트폰에 쏙~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인천e음’ 검색 후
가입하면 7~10일 내 카드 배송. 배송된 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하면 즉시 사용 가능

03

‘인천e음’은 사랑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통하는
#착한 인천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e음’ 사용하는 착한 인천 시민!

04

※ ‘인천e음’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12, 4217)로 하시면 됩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우리 시는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리 시는 올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택, 공공·민간 건물 381
곳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을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 시가 ‘색채 디자인 및 컬러링 시범 사업’ 최종 보
고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개발한 인천색 10가지를 활
용해 원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차이나타운과 월
미도, 소래포구, 송도 센트럴파크 등을 ‘2019~2020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했다.

우리 시는 협치·혁신·소통 분야 활성화를 위한 ‘시민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옛 경인고속도로)
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된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NEWS

BRIEF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 개 창출



1월 3일, 우리 시가 2022년까지의 일자리 정책 목표와 실천 과제를 담은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는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 개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시스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등 4대 분야, 14개 추진 전략, 80개 실천 과제를 설정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2월 안에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발족시켜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과 항만·경제자유구역·녹색기후기금 등 인천의 강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바이오산업·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여성·어르신·신종년 등 정책 대상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고 고용 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문의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3262



2020년까지 교통 신호망 LTE로 교체

우리 시는 2020년까지 관내 교통 신호 제어기 1,941대의 통신 회선을 저속 유선 통신망에서 초고속 무선 통신망(LTE)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KT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교통 신호 제어기 200대에 LTE망을 구축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LTE망 구축이 완료되면 교통 신호 제어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높아지고 통신 비용과 통신선 매설비 등 연간 4억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교통정보운영과 032-440-1772

인천시, 지난해 청년 고용률 특별·광역시 중 1위



우리 시의 지난해 청년 고용률이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우리 시 지난해 청년 고용률 평균은 47.9%로, 전국 평균인 42.7%보다 5.2%p 높은 수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 시 청년 고용률은 49.1%로 전년 동기 45.7%에서 지속 상승 중이며 5분기 연속 청년 고용률 역시 특별·광역시 중 1위다. 청년 실업률도 지속 개선되어 2017년 4분기 대비 0.7%p 하락한 7.9%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3% 및 7대 도시 평균 실업률 8.8%보다 낮다. 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탐구와 취업 지원 사업, 지역에 비중이 높은 중소 제조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만족감을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문의 시 청년정책과 032-440-4162

원도심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추진

우리 시는 올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66억원을 들여 주택 297곳, 공공·민간 건물 84곳 등 381곳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전력 3,000MWh를 절감해 소나무 22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03

인천시청역에 2만 시간 자원 봉사자
핸드 프린팅 전시

우리 시는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환승 구간에 자원 봉사 2만 시간을 달성한 고재창(75) 씨와 김용복(71) 씨의 핸드 프린팅을 전시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고재창 씨는 초등학교 교통 지도, 청소년 선도, 안전지킴이 등의 자원 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김용복 씨는 환경 정화와 산불 감시 등의 활동을 했다. 자원 봉사 2만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4시간씩, 14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해야 한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억원을 훌쩍 넘는 가치가 있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032-440-2445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천시 야생동물 발자국’ 소책자 발간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개관 첫해 기록을 담아 ‘인천시 야생동물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책에는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구조 실적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지난해 센터에서 구조한 독수리·저어새 등 229마리 야생동물 중 45%에 해당하는 103마리가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소책자를 받고 싶은 단체나 기관은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032-858-9703



장애인 콜택시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

인천교통공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 지난 1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 직접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어 통화가 힘든 시간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전화 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 접수 가능 시간은 전화 접수와 동일한 요청 시간 2시간 전부터 30분 전까지이며,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천장애인콜택시’ 앱을 내려받아 한 차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용 앱은 추가 개발을 거쳐 2월부터 서비스한다.

문의 시 택시화물과 032-440-3802

지자체 최초 인천 연안
미세 플라스틱 조사



미세 플라스틱 시료 채취 중

우리 시가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이 인천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세어도·영종대교·인천 신항 해역과 덕적·자월도 해역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절감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들 해역 인근에는 한강·수도권 쓰레기매립지·아라천·인천 신항·유수지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세어도 해역에 해양환경 정화선인 시 클린(Sea Clean)호를 투입해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새로운 분석·채취 장비를 제작해 구체적인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문의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032-440-5525

인천 지역 명소 4곳 ‘한국 관광 100선’ 선정



차이나타운·월미도·소래포구·송도 센트럴파크 등이 한국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구 소재 대표 관광지인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남동구 소래포구,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등을 ‘2019~2020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했다. 특히 차이나타운은 2013~2014년과 2017~2018년에 이어 이번까지 총 3회에 걸쳐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며, 월미도는 이번에 처음 선정됐다.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은 여행 박람회와 대국민 홍보 여행(팸투어) 참가 기회를 얻는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인천관광공사 032-899-7300

‘산업 육성 플랫폼’ 연구 사업 착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패러다임을 개발 사업 위주에서 입주 기업 산업 정책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2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 육성 플랫폼 운영 연구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 사업을 통해 송도·청라·영종의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바이오 헬스케어, 항공·복합 물류, 지식 서비스, 첨단 융·복합 제조 등 미래산업 성장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102

정책 제안·공약 이행 점검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출범

우리 시 정책 개발 자문과 공약 이행 점검, 대시민 소통 협력 등의 역할을 하는 ‘시민정책자문단’이 지난 1월 24일 출범했다. 학계와 시민 단체, 법조인, 기업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정책자문단은 시민정책분과 15명, 공약이행분과 15명, 소통협력분과 13명, 혁신분과 6명 등 모두 4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 맡았다. 우리 시는 시민정책자문단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실시해 시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시 시민정책담당관 032-440-2182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으로 빛 공해 관리

우리 시는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지정·시행하고 있다.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은 강화-웅진-공항지구를 제외한 인천 8개 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역을 구분해 지정했으며, 용도지역별로 조명의 조도 및 휘도가 규제된다. 새롭게 설치되는 신규 조명은 인허가 단계에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조명은 5년 안에 빛 방사 허용 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문의 시 환경정책과 032-440-3546

저소득층 자립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우리 시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II’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 II’ 통장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것으로 만기 시 가입자는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받아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규 가입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문의 시 공감복지과 032-440-2933

제7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개최

우리 시 온라인 홍보를 담당할 ‘제7기 인천시 블로그 기자단’이 지난 1월 1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블로그 기자단은 활동 경력, 콘텐츠 작성, 사진 촬영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30명이 선정됐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연령층과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파워 블로거 등 다양한 직업군 및 몽골, 일본의 이주민도 포함됐다. 활동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우리 시 정책을 비롯해 문화, 관광, 생활 정보 등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해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이다. 문의 시 미디어담당관실 032-440-3044

원도심, ‘인천색’으로 화려하게 새단장

우리 시가 지난 1월 7일 시·군·구,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색채 디자인 및 컬러링 시범 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시민과 함께 개발한 인천색 10가지를 활용해 중구 만석고가교, 미추홀구 송의평화시장 등 원도심 5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단순한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인천색을 활용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도 제시했다. 최종 보고회 이후 시·군·구 및 모든 공공기관은 추경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색채 디자인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시 도시경관과 032-440-4793



송의평화창작공간

인천대로 인천~서인천IC 제한 속도 60→70km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옛 경인고속도로) 차량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내 진·출입로 9개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어 오는 3월부터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 9.45km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70km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구간 제한 속도 조정은 2017년 12월 시속 100km에서 시속 60km로 대폭 하향 조정된 뒤 1년여만에 이뤄진 조치다. 문의 시 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53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 택배 서비스 시작

우리 시가 오는 3월부터 장난감 택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택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예술회관역점과 경인교대입구역점이다. 택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인터넷 예약으로 택배를 통해 장난감·도서·영상 자료를 대여·반납할 수 있다.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다. 연회비 1만원으로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를 빌릴 수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인천에 16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문의 시 출산보육과 032-440-3414



‘송도 워터프런트’ 2차 타당성 조사 의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의 호수와 수로를 연결해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난해 8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1·1단계 구간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되 1·2단계 구간은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공구 인공 호수 일부를 매립해 사업성을 높이는 수정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했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822

COUNCIL
NEWS

인천시의회, 2019년도 첫 회기 열어



인천시의회가 지난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올해 첫 회기 제 25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 계획을 확인하는 인천시장의 시정 보고와 교육·학예에 대한 교육감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인천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3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시의 불합리한 조례를 손보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2019년 신년 인사회 개최

인천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3일 시의회 중앙홀에서 주요 인사와 함께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7월 개원한 8대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해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시의원 모두가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교육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가 새해 첫 현장 방문 활동으로 지난 1월 10일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산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교육 시설 현장 방문은 계산고등학교, 안남초등학교, 효성남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시설 점검 및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3개 학교 시설을 점검하면서 시청각실 환경 개선, 급식 시설 설비 교체,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공간 조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 문제 해결책은 교육 인프라 구축에 있다”며 “어느 지역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 문제로 이사를 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방문

지난 1월 15일, 인천시 모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방문했다. 울산시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및 아트센터 인천 등을 방문해 개발 사업 계획과 사업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인천시의회를 둘러보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시의회는 특히 인천시의 우수 시책인 ‘주차공유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울산광역시 핵심 정책의 표본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울산시의회 방문과 관련 “모범 사례 공유 등 이번 방문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 증진과 실질적 지방 분권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소비 행태 개선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지역 소비 행태 개선 연구회’는 지난 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경제특보 초청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시 경제특보는 역외 통근과 통학 증가 및 서울·경기 대비 인천 지역 내 소비의 편의성과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소비 유인 경쟁력 약화로 인천 시민의 소비가 서울·경기로 편중되어 역외 소비율이 높은 반면, 지역 내 소비율은 낮아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접근성·편의성 및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며 양질의 의료·교육 서비스 확충, 젊은 층 유입을 위한 도시 마케팅과 인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홈쇼핑·인터넷 쇼핑물 구축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 회의, 타 시도 지역 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실태 조사,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3월부터 의정 아카데미 시작, 참여 신청 접수



인천시의회는 오는 3월부터 ‘2019년도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의정 아카데미는 청소년 의정 교실, 본회의 체험 교실, 시민 의정 교실로 나뉘며, 참가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모의 의회와 스피치 특강, 의원과의 만남, 본회의 방청, 의회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40개교, 1개 단체, 1,359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처음으로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소감문을 공모해 우수 소감문 121편을 선정, 시상한 바 있다.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의정 아카데미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2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53

문화복지위원회, 치매안심학교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미추홀구 소재 치매안심학교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상 2층, 전체 넓이 201㎡ 규모의 치매안심학교는 지난해 11월 19일 미추홀구 주안7동 옛 상수도본부 직원 관사를 재건축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관했다. 문화복지위원들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추진 상황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지하 1층에 마련된 체험 공간으로 이동해 치매 인식 갤러리를 돌아보고, 가상 체험을 실시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① 440-6137~8 ④ www.icouncil.go.kr

인천을 그린다
Drawing & Mem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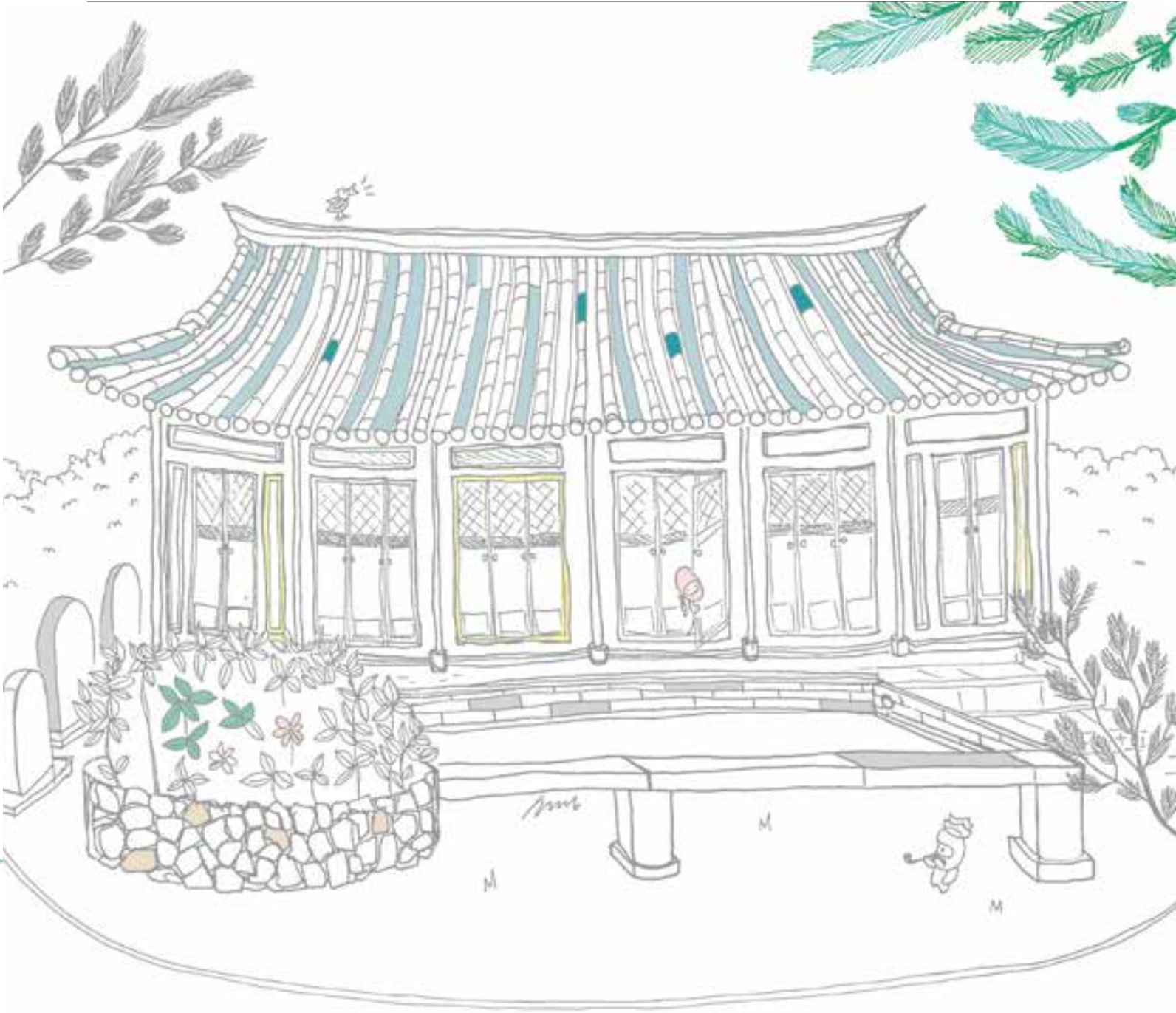
300만 인천 시민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무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여러분의 손끝으로 그려주세요.

역사가 만든 오묘한 공존, 부평도호부청사

빼곡한 주택가에 둘러싸인 부평초등학교와 학교 울타리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옛 건물 하나. 학교처럼 계양구에 있지만 ‘부평’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부평도호부청사’입니다. 600여 년 전 이 자리에는 ‘완전체’ 부평도호부가 있었습니다. 도호부는 고려와 조선 시대 지방 행정 기관으로, 고려 때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했던 군사 행정 기구에서 점차 일반 행정 기구로 변화했습니다. 원래는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도호부보다 컸지만, 세월의 풍파에 지금은 ‘일(一)자’ 형태 건물 하나만 남았습니다. ‘좀 더 보존이 잘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뒤로, 지금 모습으로라도 남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듭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 옛날 도읍을 호령했을 부평도호부의 모습을.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1월호 드로잉 인천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전여준 계양구 봉오대로



김자영 서구 경서로



이윤지 서구 가정로



유영주 부평구 마장로



정광열 연수구 새말로

일러스트 박성경 작가

부평도호부청사(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호)
계양구 어사대로 20, 부평초등학교 내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미디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 3) 기간 : 2019년 2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일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일|내|자!

민선 7기 인천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 완성됐다. 오는 2022년까지 고용률 71.2%와 실업률 3.9% 달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5만 개를 포함한 총 일자리 55만 개 창출이 골자다. 일하는 시민, 일하는 도시. 인천시가 시민 중심 일자리 정책으로 일 한번 제대로 낼 준비를 마쳤다.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

일자리 정책 로드맵 구성

- 4대 분야
- 14개 추진 전략
- 80개 실천 과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일자리 정책 로드맵 목표

오는 2022년까지

☺ 고용률 **71.2%**

☹ 실업률 **3.9%**

일자리 정책 로드맵 추진 방향

[일자리 시스템 혁신 통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으로 산업별, 정책 대상별
시민 협치 통한
일자리 정책 추진

중앙정부 위주
일자리 사업에서 탈피,
시와 군구 협업 체계
활성화

일자리 중심의
시장 운영 위한
일자리
영향 분석

인천시 여건에 맞는
일자리 지표 및
통계 구축 통한
정책 개발

일자리
종합 포털 구축 통한
일자리 정보
접근성 강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천 주력 산업 및 입지적 장점
(공항·항만·IFEZ·GCF)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바이오산업, 녹색기후산업,
먹거리산업 등

인천공항경제권 구축

공항과 연계된 산업 발전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마이스 및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창업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창업 지원

입주 공간 및 경영 기술 등

자금 지원 및 공장 보급 확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소상공인 자립 환경 조성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지속 추진과
여성·어르신·신증년
일자리 정책 선제적 추진

원도심 경쟁력 강화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생활 SOC 확충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 및 현장 중심
일자리 서비스 지원

산업 현장 수요 반영한 맞춤형 직업
훈련으로 재직자 근로 능력 향상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집중]

사회적 경제 지역 거점
시설 확대로 일자리 창출 성장 기반
구축 지원

근로자 고용 안정 및
근로 여건 개선 위한 거점별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산업 단지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사업 도입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대

일하는 도시
일하는 시민

민선 7기 인천시는 향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80개 실천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용 창출을 수반하는 제도 개선 및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 현장 체감도를 높여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2019년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2019년 소상공인 금융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명	지원 대상	대출 한도	지원 내용	이자 보전	시행 시기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최고 1억원	저금리 융자 지원	1~2%	연중
골목상권 일자리 특례 보증	학원, 수리점 등 개인 서비스 업종	최고 5,000만원	저금리 융자 지원	1.5%	3월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 보증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소상공인, 2019년 최저임금 근로자 1개월 이상 채용 소상공인	최고 1억원	저금리 융자 지원	1%	3월 초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재개발 지원 저신용(9등급 이상) 자영업자	최고 2,000만원	금융 소외자 저금리 융자 지원	2%	5월 초
청년 창업 일자리 특례 보증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최고 5,000만원	저금리 융자 지원	1.5%	5월 초

특례 보증

정부 또는 인천시의 사업 취지에 따라 특례 조치로 보증되는 사업
으로, 점포가 있는 소상공인은 업력 제한이 없으나 무점포는 창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02 다문화 사회의 이해 교육 안내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다문화 사회의 이해’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 기관 : 인천시 인재개발원

교육 대상 : 인천 시민 누구나

교육 기간 : 연중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www.cyber.incheon.kr

문의 : 다문화 관련 시 보훈다문화과 ☎ 032-440-2903

사이버 교육 관련 시 인재개발원 ☎ 032-440-7686~7

03 컨벤션·국제회의 지원 사업 공모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컨벤션·국제회의 육성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 인천의 성장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모 기간 : 1월 21일~2월 14일

신청 대상 : 인천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개최할 컨벤션 행사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지원 사업 : 일정 규모 이상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려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문의 : 인천관광공사 ☒ www.travelicn.or.kr



04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몽·청’에서
201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 중학생 1~3학년

운영 시간 :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8시 30분(월 1회 주말 체합)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참가비 : 무료

문의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 032-887-5273(오후 1시~6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체합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 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지원 사업

05 일자리 카페 ‘잡스 인천’ 기자단 모집

인천시가 운영하는 일자리 카페 ‘잡스 인천’에서 기자단을 모집
합니다.



모집 기간 : 1월 21일~2월 12일

활동 기간 : 3월~11월

지원 방법 : 이메일(lhy0711@ibitp.or.kr)

지원 자격 : 인천 시민(대학생, 휴학생, 취업 준비생 등)

활동 내용 : 인천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을 알리기 위한 기자 활동

특전 : 현직 기자의 멘토링, 잡스 인천 행사 우선 참여

(소정의 활동비 지급)

문의 : 잡스 인천 ☎ 032-438-3009

06 치매안심학교 ‘두뇌 톡톡! 뇌 건강 학교’ 운영

인천 시민 여러분의 뇌 건강 향상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뇌 건강 북 카페, 뇌 건강
체험관, 뇌 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대상 :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운영 시간 :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 : 인천시 미추홀구 승학길76번길 52-24

이용료 : 무료

문의 : 두뇌 톡톡! 뇌 건강 학교 ☎ 032-468-0921

07 인천시민문화헌장(안) 시민 의견 수렴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인천시민문화헌장’을 제정합니다.

기간 : 1월 16일~2월 28일

대상 : 시민 및 문화·예술인 등

의견 제출 : 이메일(abc123@ifac.or.kr) 또는

우편(중구 제물량로 195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송부

문의 : 인천시청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08 국가 자격증 ‘유아숲지도사’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아이들과 숲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는 ‘유아숲지도사’ 국가 자격증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수 시간 : 총 220시간(강의 190시간+교육 실습 30시간)

장소 : (사)한국숲교육협회 강의실

교육 기간 : 2월 19일부터(화·목·토요일)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교육비 : 180만원(3회 분할 납부 가능, 교재비·상해보험 가입비·

실습비 포함)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wald-edu@hanmail.net) 또는 방문 접수

문의 : (사)한국숲교육협회 ☎ 032-439-8880

09 아동 수당 만 7세 미만 확대

1월 15일 공포된 ‘아동 수당 개정안’에 따라 아동 수당 대상자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2019년 9월부터 만 7세까지 확대)
지급 금액: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신청 방법: ☎ www.bokjiro.go.kr 또는 직접 방문(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기간: 연중 상시(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문의: ☎ www.ihappy.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0 미추홀도서관 어린이 로스쿨

미추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멘토플러스 어린이 로스쿨]

기간: 2월 18일~20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초등학교 5~6학년(20명)
문의: 미추홀도서관 ☎ 032-440-6648

11 청라국제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

청라국제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새해를 부탁해! 손끝에서 펼쳐지는 부자의 마법]

일시: 2월 12일 오후 2시~4시
대상: 7세~초등학교 2학년(20명)
문의: 청라국제도서관 ☎ 032-562-6823

[새해를 부탁해! 속삭속닥, 꿈의 이야기]

일시: 2월 20일 오후 2시~4시
대상: 6~8세 아동과 보호자(10팀/20명)
문의: 청라국제도서관 ☎ 032-562-6823

12 영종하늘도서관 스마트 드론 체험

영종하늘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스마트 드론 체험]

기간: 2월 11일~14일 오후 3시~5시
장소: 세미나실1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중학생
수강료: 1만5,000원(드론 대여 및 체험비)
문의: 영종하늘도서관 ☎ 032-746-9142

13 서부여성회관 수영·헬스 회원 모집

인천시 서부여성회관에서 수영과 헬스할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 일시: 1월 22일 오전 9시~1월 23일 오후 6시
신청 방법: ☎ wiw.incheon.go.kr
결제 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선결제), 모바일(스마트폰) 결제 가능
(신청 후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접수됩니다.)
문의: 서부여성회관 ☎ 032-458-7388~9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 시장을 찾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천 시민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추천된 시민의 진솔한 이야기는 ‘시민 시장’ 지면에 게재됩니다.

[추천 대상]

- 역경을 딛고 성실하게 사는 시민
- 의로운 행동으로 귀감이 되는 생활 의인
- 주변 이웃을 돕는 따뜻한 온정 시민 등
-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면 누구나

[추천 방법]

<굿모닝인천>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 마당 또는 ☎ 032-440-8301

BOOK INFO

자연과 사진가의
오랜 동행



지은이 최병관
384쪽, 3만6,000원
펴낸 곳 한울엠플러스(주)

DMZ 사진작가로 널리 알려진 작가 최병관이 자연의 경이로움과 자신의 사진 철학을 담은 포토 에세이 <자연과 사진가의 오랜 동행>을 펴냈다. 그날그날 찍은 사진과 그에 얹힌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 이 책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일상의 작은 마주침에서도 자연의 경이를 발견하는 사진가의 기록이 담겨 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작가의 작업 일기는 아름다운 사진과 어우러져 감동을 선사한다.

니하오,
인천 차이나타운

지은이 정연학

가깝고도 먼
인천말

지은이 한성우



인천문화재단과 글누림출판사가 함께 펴낸 문화의 길 총서 시즌2의 3권 <니하오, 인천 차이나타운>과 4권 <가깝고도 먼 인천말>이 발간됐다. 3권 <니하오, 인천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길잡이로, 화교의 역사와 민속부터 중화풍 콘텐츠까지 차이나타운에서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엮었다. 4권 <가깝고도 먼 인천말>은 저자가 그동안 만나온 인천의 사람, 땅, 역사를 인천 사람들의 말을 통해 쉽게 풀었다.

‘인천서점’이 추천하는
인천 冊[책]



당신의 마음은 오늘,
안녕한가요?



경애의 마음

지은이 김금희
354쪽 1만3,000원
펴낸 곳 창비

저자는 부산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 인하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너의 도큐먼트>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최근 발표한 첫 장편 <경애의 마음>은 계간지에 1년 동안 연재한 작품이다. 소설은 ‘반도미성’ 영업팀장과 팀원 공상수, 박경애의 인연을 줄기로 한다. 두 사람의 인연의 한 축인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사건은 인천에서 성장한 작가에게 세상의 비극의 장을 연 사건이었다고. 상수와 경애의 인연은 페이스북 페이지 ‘언니는 죄가 없다’에서도 또 한 번 이어진다. 소설 속 상수와 경애를 바라보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를 맺게 되는 어떤 이에 대한 ‘경애’의 마음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천서점’에서 인천작가회의 주최 김금희 작가 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간 발표한 김금희 작가의 작품을 두루 다루며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2월 14일 오후 7시

인천서점 :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H동 1층(인천아트플랫폼)
☎ incheon-librairie@naver.com

개항 136주년, 인천항의 미래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몇 년 전 얘기다. ‘대호’(감독 박훈정)의 개봉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애관극장으로 달려갔다. 조선의 ‘범포수’를 영화는 과연 어떻게 구현했을까. 정말 궁금했다. 단 한 차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화승총을 들고 호랑이를 찾아다니는 사내. 그렇게 깊은 산중에서 맞닥뜨린 맹수를 한 발의 총알로 쓰러뜨리지 못하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운명을 지고 살아가는 ‘호랑이 사냥꾼’을 보고 싶었다. ‘칸 국제영화제’ 취재차 칸(Cannes)에 갔을 때 만났던 배우 최민식의 깊은 눈빛을 해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역시 연기파 배우였다. 산군(山君)이라 불리는 ‘어마무시’한 호랑이와 대결하는 천만덕(최민식 분)의 눈동자는 ‘올드보이’(감독 박찬욱)의 그것 이상으로 이글거렸다. 자식과 새끼를 지키며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과 맹수의 목숨을 건 대결이 이야기 열개였고, 일제가 조선을 삼킨 1925년대가 시대적 배경이었다. 감독이 바라보는 지점과는 별개로 관람 내내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때 외세에 맞서 싸운 범포수를 읽어내려고 애썼다. 문호 개방의 요구가 해일처럼 덮쳐오던 19세기, 온몸으로 외세를 막아낸 범포수들의 그 무섭도록 고독하고 치열한 삶을 말이다. 강화도에서 발발한 두 양요 때 범포수들이 화승총 한 자루로 서양 함대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저력은 호랑이를 때려잡는 용맹함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범포수들의 장렬하고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에도 1883년 2월 8일(음력 1월 1일) 인천은 결국 ‘개항’을 한다.

개항은 심각한 국권 침탈과 서구 신문물의 급속한 유입이란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국제 정세로 볼 때 역사적 필연이기도 했다. 중국은 군사력을 앞세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1842년, 일본은 최신평 함포를 탑재한 군함 구로후네(黒船)를 띄워 위협한 미국에 항복하며 1853년 각각 개항했던 터였다.

인천의 입장에서 개항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한적한 어촌이던 제물포 일대가 개항장으로 변모하며 여러 나라들이 속속 몰려들었고 인천을 나눠먹기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 국제 사회처럼 보였지만 인천은 일본 식민지 경영의 교두보였을 뿐이다. 대대로 살아온 생활 터전마저 빼앗겼다. 바닷가 풍광이 아름다운 제물포 일대를 조계지란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차지하면서 인천 사람들은 홍예문 밖 동쪽으로 밀려 나가야 했다. 개항 직후 인천 지역 사회 상공업이 번창했다지만 결국 인천 사람들의 토지와 노동력을 수탈한 일본인들만의 잔치였다. 한국사 전반에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인천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반면, 신문물의 급속한 유입과 함께 조선시대 이래 해양을 통한 대외 무역 중심지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했고, 인천-서울 간 화물 수송이 활발해지며 화물 운송로가 해로에서 육로로 바뀌었다.

개항기, 대한제국을 근대 국가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체가 인천항이다. 갑문 축조(1918),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인천내항 도크 확장(1966~1975), 연안부두 축조(1973) 등을 통해 물류를 내보내고 들여오며 인천항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축을 담당했다. 인천항을 품고 근현대사의 큰 줄기를 도도하게 흘러온 개항의 역사가 오는 2월 8일이면 136주년을 맞는다. 인천 시민과 인천시는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어떻게 하면 개항장과 인천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유공원에 올라 인천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다. 겨울 바다가 말을 걸어온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발 딛고 사는 땅은 후대로부터 잠시 빌려온 땅이란 사실입니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한쪽 벽에 크게 걸린 가족사진이 그리 부럽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 흘러 형편은 조금 풀렸을지 몰라도, 온 가족 둘러앉아 얼굴 보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굿모닝인천>이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집 안 행복이 흐르는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던 두 딸아이가 훌쩍 자라 각자의 인생길 앞에 섰습니다. 첫째는 어엿한 은행원으로, 둘째는 새내기 대학생으로. 네 식구 오순도순 함께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아쉽지만, 더 넓은 세상과 당당히 마주할 두 딸아이는 정미란·박복만 씨 부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부모의 걱정과 서운함을 미소로 덮을 줄 아는 어른스러운 두 딸. 가족이란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할 정미란 독자님의 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드립니다.

왼쪽부터 둘째 딸 박다은(20) 양, 엄마 정미란(48) 씨, 아빠 박복만(54) 씨, 첫째 딸 박해빈(23) 양

이달의 사진은 ‘**사진 명장 스튜디오**’에서 찍어주셨습니다.

‘사진 명장’ 최봉순(62) 사진사. 46년 사진 인생 끝에 거머쥔 명장 타이틀은 커다란 자부심이다. 부천에서 활동하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4년 전 사진관을 소래포구로 옮긴 그에게 ‘출사’는 또 다른 기쁨. 인천시 논현동 가가호호 번듯한 가족사진 걸리는 날을 기대하며 셔터를 누른다. 위치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문의 032-348-4784 / 032-345-4036

※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

